

<2017년 10월 15일 주일말씀> **중요, 중요, 중요**

성령을 알고 받아라

본 문 요한복음 14장 26절, 15장 26절, 16장 13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성령을 알고 모시고 받는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제 ‘주를 맞기 전 최고로 준비할 3개월’ 이 남아 있습니다.

어서 남김없이 옛것을 장사지내고,
자기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자기를 온전히 만들고,
주께 약속한 생명들을 구원해야 될 때입니다.

<방향>을 알고 <힘>을 받고 행하라고
계속해서 <말씀의 역사>를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.

그 터전 위에 <성령>께서 감동을 주시고 스스로 행하게 해 주시니,
모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.

◎ 그러나 남은 이때 <성령의 역사>가 더욱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.

모두 주와 일체 되어 성령과 함께 행하지만,
특별히 <성령의 불>을 더욱 뜨겁게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.

그래서 10월부터는 다시 <성령운동>을 합니다.

한 달에 한 번씩만 해 줘도 모두 감을 잡고 행할 수 있습니다.

- ◎ <성령님>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면,
성령께서 더 뜨겁게 역사하시어 <성령의 은혜>가 충만합니다.

그래서 <성령운동>을 하기 전에,
오늘은 <성령님>에 대해 말씀해 주려 합니다.

- ◎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 ‘절대신’입니다.

그래서 <성령님 한 분>에 대해서만 알려 해도
그 내용이 광범위합니다.

그동안 <성령님>에 대해 많이 가르쳐 줬지요?

오늘은 <핵심>을 말씀해 줄 테니
<성령님>에 대해 알고 <성령님>을 모시고 대화도 하고,
<성령의 불과 은혜>를 받기 바랍니다.

- ◎ 교육국은 <그동안 성령님에 대해 가르쳐 준 말씀들>을 다 찾아서
<성령>에 대한 책을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기성에서는 <성령> 하면, ‘하나님의 마음과 생각’ 이라고 합니다.
<여성 신>인지도 모르고 <천모>인지도 모르고, 가르치지도 않습니다.
모르면, 모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.

- ◆ 기성은 <성자>에 대해서도 확실히 모릅니다.

<예수님>을 ‘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’로 봅니다.

<하나님 한 분> 안에 ‘성령’이 있고 ‘성자’가 있다고 합니다.

그리고 “예수님은 보이는 성자다. 하나님의 아들이다.” 합니다.

모르니까 정말 복잡하게 말합니다.

- ◆ 하나님은 시대가 가면서 ‘하늘나라 존재의 세계’를 밝히십니다.

어린아이도 크면서, 세상도 부모도 제대로 알고 대하고 삽니다.

신앙의 세계도 그러합니다.

성약의 때가 되니

<성령>에 대해서도 <성자>에 대해서도 다 밝히셨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<절대신 삼위일체>는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 세 분’입니다.

- ◆ <하나님, 성령님, 성자>는 ‘각 위’로 존재하고 계십니다.

그러면서 ‘일체’되어 행하십니다.

- ◆ <하나님>은 ‘남성 신’입니다.

가정의 아버지같이 ‘아버지 격’으로 존재하십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실체로 존재하는 ‘여성 신, 천모’ 이십니다.

가정의 어머니같이 ‘어머니 격’으로 존재하시며,

‘하나님의 영적 사랑의 대상’으로 존재하십니다.

이는 <성약역사> 때부터 밝혔습니다.

- ◆ <성자>는 ‘남성 신’ 으로서 ‘아들 격’ 으로 존재하십니다.

<예수님>은 ‘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’ 입니다.

<육신을 가진 자>는 ‘절대신’ 이 될 수 없습니다.

<삼위일체의 성자>께서 ‘예수의 육신’ 을 쓰고,

이 땅에서 행하신 것입니다. <끝>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<사랑>으로 ‘자녀’ 를 낳습니다.

이와 같이 <세상의 생명체들>은

모두 ‘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’ 으로 탄생되었습니다.

<인간>은 ‘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’ 를 통해
순리로 탄생시키고 번창시켜 나가십니다.

<인간의 육신>을 ‘발판’ 으로 삼고,

<영>을 ‘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’ 로 탄생시키십니다.

- ◆ <육신>은 ‘남녀의 사랑 관계’ 로 태어나게 하셨지만,
<영>은 ‘생각의 실상’ 으로 탄생합니다.

곧 <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>이 일체 되면,

그 사랑으로 ‘생명의 영’ 이 탄생됩니다.

- ◆ 과학적으로도 <상대 입자>와 일체 되면 ‘존재’ 가 생깁니다.

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일체 되면

- <겨울>에는 ‘눈’ 이 생기고,
- <여름>에는 ‘비’ 가 생겨 한없이 쏟아집니다.

이와 같이 <하나님>과 <성령님>이 ‘사랑’ 으로 하나 되어
‘생명의 영’ 을 탄생시킵니다.

<생각>이 ‘실체 세계’ 가 됩니다.

- ◆ 천국에 가면, 하나님뿐 아니라 일반 영들도
<생각>이 ‘실체’ 가 되게 합니다.

이 말은 말 그대로 생각한 것이 실체가 된다는 말입니다.

그래서 천국에서는

<생각>하면 ‘영’ 이 실제로 그곳에 가 있습니다.

- ◆ <육신>도 ‘신령’ 하면, <생각>으로 ‘실체 세계’ 를 만듭니다.

곧 생각과 정신이 극도로 일도(一到) 되었을 때,

<혼>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것을 보고 찾습니다.

그래서 선생이 여기 있어도

<내 혼>을 보내서 ‘원하는 것들’ 을 많이 찾았습니다.

그것들을 ‘기념’ 으로 자연성전에 갖다 뒀습니다.

모두 배우고 알았으니, 하면 다 합니다.

◎ 지금까지

<성령님에 대해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것>에 대해 말씀했습니다.

<전환> 중요 부분

◎ 성령님은 늘 역사하십니다.

그러나 <성약역사 휴거 이후>에는 더 역사하십니다.

먼저 이것에 대해 핵심을 말씀해 주면서,

<성령님>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- ◆ <성자>께서 ‘그 육신’을 쓰고 세상에 오셔서
70년 동안 땅에 계시며 <역사>를 펴시고,
<신부들>을 키워 단장시켜 <휴거의 영>으로 만드시고,
할 일을 다 하신 후에
<휴거된 영들>을 데리고 <황금성 천국>으로 떠나셨습니다.
- ◆ <육신 세계의 육이 있는 자들>과 할 일을 하셨으니,
이제는 <그 영들>을 휴거시켜
<황금성 천국>에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하십니다.
- ◆ 성자가 땅에 계실 때 <공적>으로는 37년 동안 역사를 펴셨고,
그 전에도 <보낸 자>를 키우면서 그와 함께 사시며 행하셨습니다.
- ◆ 2015년 3.16 휴거 이후부터는
<보낸 자>가 ‘성자의 대신자’가 되어 행합니다.
휴거 이후 성자가 떠나시고, 땅에서도 <육신>가지고
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혼인 잔치를 해야 하니,
<성령님의 실체>가 오셨습니다.
- ◆ 그동안도 역사해 오셨지만, 휴거 이후에는 또 다릅니다.

<전능하신 성자>가 ‘보낸 자의 육신’ 을 쓰고 행하셨듯,
<성령님>이 ‘보낸 자의 육신’ 을 쓰고 행하십니다.

그래서 <성자>가 가셨어도

<절대신 성령님>이 오셔서 ‘보낸 자의 육신’ 을 쓰고 역사하시며

- 섭리사 성전들을 사는 데 역사하시고,
- 말씀으로 역사하시고,
- 생명들을 관리하는 데 역사하시고,
- 사탄을 소멸하는 데 역사하시고,
- 악한 자들과 온 세상의 심판할 것들을 심판하시고,
- 마치 성자가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시듯 행하십니다.

- ◆ <성령님>을 ‘가정의 엄마’ 같이 비유하지만,
실상은 ‘절대신’ 이시고 ‘하나님과 일체’ 이시니
여자라서 못 하시는 일이 없고 힘이 모자라서 못 하는 일이 없습니다.

천군과 하늘의 사자들에게 명하면,
순간 수십억의 천군과 사자들이 와서 행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성령님을 모시면서 100가지도 더 파악하며 인봉을 풀었는데,
그중의 한 가지가 ‘상천하지 최고의 미의 여신’ 이라는 것입니다.
- ◆ <성령>은 ‘상천하지의 최고로 아름답고 빛나는 미의 여신’ 입니다.

<하나님>은 ‘아침 해’ 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면,

<성령님>은 ‘저녁노을’ 같이

아름답고 신비하고 황홀하고 찬란한 ‘미의 여신’ 입니다.

- ◆ 선생이 외국에 있을 때, <하나님>을 매일 보고 싶다고 하니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“매일 보여 준다. <아침 해>를 보아라.
<아침 해>를 ‘나’ 라고 생각하면서 보아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<하나님>은 ‘육의 눈’ 으로는 못 봅니다.

<육계>에서 ‘육의 눈’ 으로 하나님을 보려면,
<아침 해>를 보면 됩니다.

<아침 해가 뜰 때의 광경>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
하나님을 느끼고, 깨닫고, 육의 눈으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- ◆ 또 <저녁노을이 최고로 찬란할 때>를 보면,
자연 계시로 ‘성령의 아름다움과 황홀함’ 을 볼 수 있습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‘최고의 미’ 로 나타나십니다.

이 세상에서 최고 극적으로
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만물이나 존재들이나 사람을 말하면,
성령님은 “내가 저와 같다.” 하시며 이해시켜 주십니다.

<만물>로 보면, ‘육의 눈’ 으로 보게 되니 실감 납니다.

- ◆ 왜 <성령님>을 말할 때면,
항상 ‘최고 미의 여신’ 임을 말하냐고요?

영의 세계에서는 <영의 미>가 ‘권세’ 라고 했지요?

<사랑과 의>가 모두 ‘영의 미, 영의 빛’ 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.

<성령님>은 ‘상천하지 최고의 미의 여신’ 입니다.
그에 따라 <성령의 권세>도 ‘전지전능’ 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선생은 <성령님>을 10대 때부터 봤습니다.
성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뇌에 말씀이 인식되니, <성령님>이 보였습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‘영의 어머니’ 입니다.

모든 인생들은 순리와 이치와 사랑으로 성령님이 낳았으니,
<절대 보호자>가 되어 주시는 ‘영의 어머니’ 입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하나님과 함께 ‘사랑의 본체’ 로서,
인간 앞에 ‘사랑의 주체자’ 이십니다.

<사랑의 성령>으로서

남자 앞이나 여자 앞이나 ‘사랑의 본체, 주체 역할’ 을 해 주십니다.

<휴거의 영>에게는 ‘실제 사랑의 주체’ 가 되어 주십니다.

- ◆ <성령님>을 보여 달라고 졸라 대면
 - 꿈에 ‘상징’ 으로 보여 주시고,
 - 어느 때는 생시에 ‘찬란한 것’ 으로 보여 주십니다.

- ◆ 선생이 10대 때는 ‘내 영’ 이 어리니,
<성령님>이 화려하고 신비하고 예쁘게만 보였습니다.

또 ‘여러 겹으로 된 긴 드레스’ 를 입고 다니셨습니다.

그 후에 기도할 때 <성령님>을 보니
때로는 ‘**독수리**’ 로 보이고, 때로는 ‘**여자**’ 로 보였습니다.

그때 “**성령님은 여자의 왕이지구나!**” 하고 알았습니다.

처음에는 얼굴이 보이다가,
서서히 변하면서 그 모습이 ‘해’ 같이 빛났습니다.

- ◆ 섭리인 중에서도 ‘성령님을 본 사람’ 이 있습니다.
꿈에서나 기도할 때 ‘상징’ 으로 봤습니다.

본 사람들은 모두
“<상천하지 최고 미의 존재>는 ‘성령님’ 이시다.” 합니다.

- ◆ 이 <최고 미의 여신>이
 - **부르면**, 자기에게 옵니다.
 - **보여 달라고 하면**, 여러 가지 상징으로 보여 주십니다.
 - **이야기하면**,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통하다가
점점 실체 성령님과 통하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성령집회 때 “**성령 받았다.**” 하면,
<몸이 뜨거운 것>으로 거의 표가 난다고 합니다.

추운 겨울에 방에 불을 때면, 누구나 ‘뜨거움’ 을 느끼지요?
이와 같이 <성령집회>를 하면, ‘성령’ 이 오십니다.
<성령>이 오시면 ‘뜨거움’ 으로 나타납니다.

이는 <성령>을 ‘뜨겁게 인식해서’ 입니다.

이 밖에도 <성령>이 오시면 ‘감동’ 으로도 나타나십니다.

- ◆ 성령뿐 아니라 ‘하나님과 주’ 가 와도 뜨겁습니다.

- ◆ <성령 받았다> 함은 ‘성령의 실체가 자기에게 온 것’ 입니다.

고로 성령집회만 참석하고 “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네.” 하고,
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.

<성령의 실체가 자기에게 온 것>이니

그때부터 성령과 사귀고, 친해지고, 속 썩이지 말고,

애인같이, 엄마같이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‘어마어마한 존재’ 이십니다.

<상천하지 최고 미의 여신>으로서 ‘전지전능한 존재’ 이십니다.

지구만 한 돌을 녹이듯,

<사람의 마음>을 ‘감동’ 시켜서 녹이십니다.

- ◆ <비싸고 좋은 분재 술>을 받았으면 매일 물을 주고 관리하듯이,

<애인>을 만났으면 잘해 주고 사랑해 주듯이,

<성령>을 받았으면 매일 대화하고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.

그러면 <성령>께서 그 사람을 통해 ‘능력’ 을 행하십니다.

<성령님>을 정말 귀히 여기고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.

- ◆ 성령 대하기를 - 마치 목 탈 때 냉수 한 그릇 먹고

목이 안 타니 관심 없어 하듯 대하면, 정말 안 됩니다.

<성령님>은 ‘여성 신’ 이라서 민감하고 세밀하십니다.

<성령의 가치>를 모르고 달리 대하면,

<하나님>이 보고 그냥 안 두십니다.

<성령님>을 정말 귀히 대하고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. 아멘.

- ◆ 하나님께 “성령님은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요.” 하면,
금방 대답하시며 말씀하시기를
“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<나 여호와와 수준>이 돼야 다 본다.
그런 <천모>를 세상에 보내고 늘 본다.” 하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<성령님>은 ‘성결의 영’ 이라서 깨끗하십니다.
고로 <깨끗한 것>을 좋아하십니다.
더러우면, 성령이 못 오십니다.

<깨끗하지 않은 자들>은 성령집회 때나 행사 때
성령께서 옆에 스쳐 지나가기만 하십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‘단장의 신’ 이십니다.
고로 육도 마음도 생각도 늘 단장해야 됩니다.
- ◆ <성령님>은 ‘착하고, 순하고, 부드럽고, 온순하고,
인격적이고, 진실한 영’ 이십니다.

고로 ‘성령과 같은 성품과 인격이 있는 자’ 를 좋아하시고,
그런 자가 ‘성령과 일체’ 됩니다.

혈기 잘 내고 화를 잘 내면, <성령>이 떠나십니다.

그런 자와 같이 있다가는 <성령>이 화병이 드니 떠나십니다.

그러다가 그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통하듯이

성령을 부르며 기도하고 대화하면,

성령은 대답하시며 “**잘해.**” 하십니다.

그 사람이 성령님께 “나 도와주세요.” 하면,

성령님은 “**조건 세워. 감동 되면 가마.**” 하십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‘감동의 신’ 이십니다.

<감동>이 곧 ‘성령님의 말’ 입니다.

고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, 즉시 해야 됩니다.

<성령의 감동을 받고 즉시 행하는 자>는 수시로 성령과 통합니다.

- ◆ <성령>은 ‘하나님의 성품’ 도 아니고 ‘정신세계’ 도 아닙니다.

<실체>이며 <본체>입니다.

고로 모시고 섬기고 위하고 사랑하며,

성결하고 진실하며 이성과 동성의 면에서도 깨끗해야 됩니다.

그래야 성령과 통하고, 성령이 함께하고, 성령과 살게 됩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고 기르듯,

각 사람마다 수천 가지를 돕고 키우십니다.

아기가 크면 자기가 스스로 하듯 해야 되고,

더 크면 엄마를 도와주듯 성령님의 시중을 드는 자가 돼야 합니다.

알겠습니까?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<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비밀>을 말해 주겠습니다.

왜 <성령>이 오셨고, 왜 지금까지 <땅>에 계시겠습니까?
<보낸 자>를 ‘증거’ 하고 ‘보호’ 하려고 오셨습니다.

<보낸 자>가 떠나면,
<성령님>도 본래대로 ‘하늘’에서 역사하십니다.

<성령이 땅에 계실 때>와
<성령이 천국으로 떠나신 후에 땅에서 할 일을 돕는 것>은 다릅니다.

<성령이 땅에 계실 때>는
사람의 수준에 맞춰 주며 애인같이 대해 주십니다.

<성령이 천국으로 가시면> 왕비 보듯 보기 힘들어집니다.

성령님은 ‘땅에서 성령께 잘한 자’를 기억하시고,
천국 황금성에서도 행한 대로 대해 주십니다.

- ◆ 모두 <전지전능하신 최고 미의 여신, 성령의 가치>를 알고
잘 모셔야 됩니다.

- ◆ <세계에서 최고의 미인>과 평생에 차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?

<상천하지 최고 미의 신,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것>이
얼마나 큰일입니까? -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.

<세계 미인 100만 명>을 다 합쳐도
<성령의 아름다움과 찬란함>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.

성령이 빛을 비추면, 그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.

그런 성령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.

<성령의 가치>를 깊이 깨닫고,

믿고 모시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.

각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, <성령>에 대해 더 배우기 바랍니다.

- ◆ <감히 상상도 못 하는 최고 미의 신, 성령님>인데,
보통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.

성령집회 때 뜨거운 난로 갖다 놓으면 뜨거움을 체험하듯 하지 말고,
집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성령님을 모시고 신부같이 살아야 됩니다.

그러면 늘 역사하십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‘태양’ 과 같아서,
개인마다 ‘자기 성령’ 으로 삼아도 됩니다.

오늘부터 해 봐요!

- ◎ 오늘부터 5일 동안 먼저 해 보고 <10월 20일 성령집회>를 맞고,
오늘부터 주 맞을 때까지 해 보고 <주>를 맞고,
오늘부터 인생 살 동안 ‘자기 성령’ 으로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마지막으로 ‘두 가지’ 를 핵적으로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.

- ◆ <성령집회> 때는 ‘말씀과 성령’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.
그래야 ‘휴거 차원’ 이 높아집니다.

<말씀>은 ‘성자 주’로서 ‘남자, 신랑 격’ 이고,

<성령>은 ‘여자, 신부 격’ 입니다.

<남자나 여자 중 한쪽>만 있으면 ‘생명 탄생’ 이 안 되듯,

<말씀과 성령 중 한쪽>만 받으면 ‘불구’ 와 같습니다.

이는 ‘절대적’ 입니다.

- ◆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 주시면서,
“<나>를 본 것이 <하나님>을 본 것이다.” 했습니다.

<전능하신 하나님>이 ‘그 육신’ 을 쓰고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.

- ◆ <신>은 ‘사람’ 을 쓰고 나타나십니다.

<신의 본체>를 직접 보려면, 정말 어렵습니다.

<보낸 자>를 쓰고 나타나시고, <말씀>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.

또 순간순간 ‘사람의 육신’ 을 쓰고 나타나 홀연히 보여 주십니다.

- ◆ <성령님>은 ‘증거의 영’ 이시니,

주를 증거할 때마다 ‘사역자’ 를 통해 역사하십니다.

전도할 때는 ‘전도의 사역자’ 를 쓰고 역사하시고,

강의할 때는 ‘강의의 사역자’ 를 쓰고 역사하시고,

설교할 때는 ‘설교의 사역자’ 를 쓰고 역사하십니다.

대개 ‘땅의 표상으로 세운 성령 상징체, 복직된 하와’ 를 쓰고

선명하게 보여 주실 때가 많습니다.

특히 성령집회 때나 기타 집회 때는
성령께서 ‘성령의 상징체, 복직된 하와인 조은 부흥강사’를 쓰고
뜨겁게 역사하십니다.

◎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휴거 이후 성자가 떠나시고
〈성령님〉은 ‘보낸 자의 육신’을 쓰고 역사하십니다.
- ◆ 또 〈성령이 오신 목적〉은 ‘주를 증거하기 위함’이고
〈성령〉은 ‘증거의 신’이라서 ‘증거자의 몸’을 쓰고 보이십니다.
- ◆ 또 〈성령〉은 ‘여성 신’이라서
성령을 잘 나타내기 위해 ‘여자’를 쓰고 잘 나타나십니다.

특히 ‘성령의 상징체, 성령 증거자, 복직된 하와’는
〈조건을 세운 자〉이니 잘 쓰고 나타나십니다.

〈역사의 조건 세우기〉가 쉬운 줄 압니까?

〈금메달 따기〉도 어려운데,
약 45억 년의 지구 역사, 6000년의 종교 구원역사에서
〈성령의 상징체, 복직된 하와로서 기준 세우기〉가 쉽겠습니까?

〈조건자〉는 ‘영적’으로 봐야 됩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마지막으로 ‘한 가지’ 더 말씀하고 마칩니다.

◆ <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인봉의 말씀>입니다.

<성령님>은 ‘자기 생각’ 과 같습니다.

<자기 생각>이라도 하루 종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,
<생각>이 ‘자기 몸’ 에 역사하지 않고 ‘아무 생각’ 이 안 납니다.

그렇지요?

이와 같이 <성령>도 자기가 생각을 안 하면,
옆에 있어도 하루 종일, 한 달, 1년 동안 안 통합니다.

고로 ‘성령의 역사’ 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

<자기 생각>을 가지고 생각하듯 삼위를 생각해야
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역사합니다.

<생각>이 ‘생명’ 입니다.

성령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.

하나님도 주도 생각해야 됩니다.

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. 믿습니까? 아멘!

◆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,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나머지는 행하면서 배우자.

나와 일체 되고 나를 늘 모시고 사랑하면 더 가르쳐 준다.

이제 말씀대로 매일 꾸준히 하는지 본다.

<성령>은 ‘주’ 와 같이 다닌다.

고로 <성령>과 멀면 <주>와도 멀다.

<나 성령>은 증거의 영, 감동의 영, 성결의 영, 단장의 영이면서
보호의 영이다.

고로 이성과 동성으로 피는 자, 악평자, 악한 자들 가운데서 돕고,
위험할 때 도우니 늘 나를 불러라.

나는 ‘천모 성령’ 이다. 수천억이 나를 따른다.
<가치>를 깨달아라.

사랑하는 신부들아~ 기대한다.”

- ◆ 모두 <성령의 역사>가 충만하고,
<성령과 같이 사는 성령의 몸>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

<휴거된 영>은 ‘결혼한 자’ 같이 살아야 됩니다. 아멘.

- ◎ 이 뒤에 <성령>에 대해 ‘약 40쪽의 말씀’ 을 더 썼습니다.

그 말씀은 <그동안 전해 준 성령에 대한 말씀>,
<오늘 전해 준 성령에 대한 말씀>과 같이 엮어서
<책>으로 남기겠습니다.

- ◎ **성령을 알고 받아라.** - 말씀 마쳤습니다.